

문화광장



홍 정 호
작곡가

“2022년 6월 1일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한 오영훈 도지사의 출정식 연설을 기억하고 있다. 대전 환을 뛰어넘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가득 찬 내일을 약속했다. 도민이 꿈꾸는 대로, 도민의 말을 듣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겨레와 함께 미래로, 세계속에 빛나는 제주’ 오영훈 도지사는 도립예술단과 함께 평양공연을 성공리에 마치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의 1%의 영광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을 겨레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제주 4·3 교훈은 다가올 미래에 통일을 눈앞에 둔 조국의 분열과 혼란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주가 이미 지불한 희생의 값이라는 걸 세상이 알게 될 날을 기대한다. 고통분담에 관한 이야기이다. 제주형 청년예술가 보장제 실현이다. 전제 조건이 있다. 제도권 안의 예술가와 제도권 밖의 예술가에 대한 이해이다. 먼저 제도권 안의 예술가 집단은 도립예술단 단원과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는 예술가를 말한다. 도립예술단 전속 예술가로서 자긍심에 합당하게, 생활이 가능할 만큼 현실적인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 그리고 도립예술단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립예술단원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제한을

두자는 이야기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국제적 안목을 가진 청년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내 공연, 국내 공연 그리고 해외 공연까지의 패키지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탐라 천년의 강인한 기상의 DNA를 가진 제주 청년 예술가의 성장을 위해 기관은 타 국가 도시 문화예술 관련 재단 또는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접근 가능한 예술활동의 범위를 제공해 해양왕국의 DNA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라는 것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그 자체가 글로벌 예술활동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제주예술인, 한계를 뛰어넘는 담대한 기상을 지닌 제주예술인을 기대하자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제주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순수예술고등교육이 생겨야 한다. 연극과, 국악과 그리고 발레·한국무용을 포함한 무용과의 개설을 뜻한다. 옛 중앙로의 명성을 되찾고 싶은가? 그렇다면 어떻게 설득해서든, 중앙로의 랜드마크가 될 만큼 투자를 해서든 중앙로 옛 제주대학병원 건물에 제주대학교 예술대학을 유치해야 한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의 구현을 위해 예술이 살아있는 대학로를 만들어야 한다. 이해관계와 과정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 있으나, 이는 예술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원도심 재생과 새로운 세상 사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그들이 새로운 제주를 여는 열쇠를 쥐고 있으며 그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사설

오 도정은 ‘제왕적 도지사 시대’ 끝내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일 취임사에서 의미있는 말을 남겼다. 오 지사는 “오늘부터 도민을 섬기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천명했다. 실제로 취임사를 통해 ‘도민을 위해 일하는 도정’ 등 ‘도민’을 수십 차례 피력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도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도민 정부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오 지사가 직접 ‘제왕적 도지사’를 언급한 점이다. 오 지사는 “권위적인 제왕적 도지사 문화를 청산하고, 제왕적 권력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긴 이후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7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제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내세운 이유일 것이다. 오 지

사가 선거 때 공약한 기초자치단체 모형도 지난달 윤곽을 드러냈다. 검토안으로 1인 현행 체제(1도·2시), 2인 1도·3시 체제(국회의원 선거구) 등 5개안이 제시돼 앞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오 지사는 선거과정에서 임기 2년내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결정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이미 로드맵도 나왔다. 여론을 수렴해 그 모델을 확정 한 후 2024년 하반기 주민투표를 거쳐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이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알다시피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왕적 도지사’란 괴물을 탄생시켰다. 대신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해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끝내야 한다.

김 교육감 ‘소통’ 행보, 제주교육 새 전기돼야

제주도교육감이 새로 취임, 교육의 방향과 현장의 변화 폭에 큰 관심이다. 도민사회가 진보성향 인사서 8년 만에 보수성향 교육감의 취임에 큰 변화를 예상해 온게 사실이다. 김광수 교육감 취임사는 예상과 달랐다. 새 교육감은 전임자의 정책·사람을 이어받으면서 소통과 협력신장을 핵심 화두로 꺼냈다. 교육계 주변선 ‘의외’란 말이 나온다. 김광수 교육감 취임사는 소통을 통한 행복한 제주교육 만들기, 협력신장과 협력격차 해소에 집중됐다. 김 교육감은 “교육정책 계획단계부터 정보공개하고, 의견수렴과 대화로 갈등이 없도록 의사결정 최종 단계까지 모든 칸막이를 걷어내겠다”며 소통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또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로 정확한 학력진단

을 하고, 학력진단 결과에 따라 개별 맞춤형 브릿지교육을 하겠다”고 학력향상 세부 방향까지 내놔다. 제주교육의 새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사람·정책 바꾸는 일 하지 않겠다. 다 안고 가겠다. 다 함께 하겠다”는 원고에 없던 취임사도 했다. 교육감은 달라도 전임의 ‘사람·정책’을 유지하면서 소통과 협력신장이란 교육행정의 핵심 화두를 일컫겠다는 의지다. 교육계 ‘소통’은 그간 제주도 일반계고 신설 갈등, 외고 일반고 전환과정 등서 나타난 소통부재 악영향서 수없이 제기돼 온 화두였다. 소통은 사회 모든 분야 발전·성장의 첫 ‘단추’다. 김 교육감의 소통 행보는 도민사회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도교육청이 소통확대로 여러 교육현안서 성과를 내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기대한다.

열린마당

사람이 그려내는 종합적인 무늬, 오페라



신 민 호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역사 속 사람들이 그려온 특색있는 반복을 문화라고 한다. 의식주를 비롯해 언어, 풍습, 종교 등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는 문화를 우리는 향유하고 소비하며 자신도 모르게 생산에 이바지한다.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예술가들만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문화라는 무늬가 처음 세상에 나와도 그것이 반복되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반복할 때 그것은 무늬가 되고 점차 깊어진다. 문화에 가치를 불어넣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일반적 대중의 역할이다.

‘이중섭’은 서귀포의 문화로서 우리 삶에 점차 깊이 새겨지고 있다. 서귀포에 머문 한국인이 사라는 작가 이중섭에 대한 향수가 이중섭미술관, 이중섭예술제 등으로 서귀포에 가득하다. 그 중 창작 오페라 이중섭은 2016년 처음 공연을 시작으로 꾸준한 성원을 받아 벌써 올해 6번째 공연을 앞냈다. 웅장한 관현악과 가슴을 울리는 합창의 청각적 아름다움과 이중섭 작가의 작품이 녹아 있는 무대와 배우와 무용단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창작 오페라 이중섭은 올해 9월 23~24일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이중섭 작품의 아름다움과 그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문화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중섭의 아름다움이 서귀포에 아로새겨지길 바라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소외된 청년 없도록 범위 확장 하겠다”

도, 청년정책 발굴 지원 앞장

○…제주청년센터가 단계별 청년활동·교육·생활·공간 지원을 통해 청년정책이 청년의 일상과 맞닿을 수 있도록 앞장. 제주청년센터는 올 상반기 청년의 삶과 청년활동 연계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청년 1인가구 등 새로운 청년 단위를 발굴하는 한편 도내 청년들의 일상에 기반한 청년들의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제주청년 일상 연구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 이중환 제주도청 기획조정실장은 “센터의 청년정책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역량을 개발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소외된 청년이 없도록 범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언급. 고대로그자

교육 사안에 초기 대응 강조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후 첫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졸출만이 간세했다 답들만이 움직인다”는 제주도 속담을 꺼내며 교육 현장의 사안 발생 시 초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 김 교육감은 4일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해 초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사실 그대로 도민들에게 알리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같은 속담을 언급. 또한 감염병 시국과 관련 “여름 휴가철 유입될 관광객으로 인한 혹시 모를 유행을 대비해 코로나19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교육청과 학교 역시 학생들이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 전선희기자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을2리 웅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저녁반 국비지원 초보자 가능
컴퓨터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과정
초보자도 자격증 취득 가능

대 상 재직자, 구직자(취업목적), 영세사업자, 학생(휴학생)등 거의 대부분
과정명 문서작성 실무자 양성 (ITQ한글엑셀파워포인트 취득)과정
기 간 **2022.07.20 ~ 10.12 (조기마감 가능)**

일 정 월~목 (주4회)
시 간 저녁 7시 ~ 9시 50분
자 비 386,680 (근로장려금 수급자 212,680)
준 비 내일배움카드 및 일반인 (전체금액 납부)

내일 배움카드 발급기간이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바랍니다. (064-749-3434)

주식회사 제원직업전문학교
jejujw.com (제주시 연동 283-26, 3층)
T. 064-749-3434

※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감굴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망유자, 아마나스

조 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

감굴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독이 유효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거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 글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굴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 8년생
·레드향(무투) 1, 4년생	·궁천 변이(오하라배니)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림조생 5년생	·황금향 1, 4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 파 농 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